

한·중 석유화학회의 8월29일 개최

제주서 7번째 석유화학회의 ... Sinopec · PetroChina 주제발표 예정

제7차 한·중 석유화학회의가 8월29일-9월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이영일 회장과 주요회원사 간부진 50여명이 참여하며, 중국 측에서는 중국석유화학협회 이용무 회장 외 3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석유화학 관련 주제에 대해 한국과 중국 측에서 번갈아가며 발표할 예정이며, 특히 Sinopec과 PetroChina 관계자가 자사의 생산 및 경영실적 등을 공개하며 한국과의 연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LG석유화학이 중동의 추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LG화학 기술연구원에서는 기존의 석유화학 시장을 넘어 IT, BT 등과 연계되는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전망을 논할 계획이다.

7차 한·중 석유화학회의(2005) 주제발표 일정

구 분	주제발표	비 고
8월30일	중동 에틸렌공장 신증설 및 경쟁력	LG석유화학
	중국의 폴리올레핀 시장전망	PetroChina
	Sinopec 생산 및 경영실적	Sinopec
	PetroChina 생산 및 경영실적	PetroChina
	IT/BT/NT 연계 석유화학 시장전망	LG화학 기술연구원
	프로필렌 원료 획득 기술	PetroChina
8월31일	CA 체인 관련	한화석유화학
	한국석유화학공업의 현황과 전망	석유화학공업협회
	합성섬유, 합성고무 시장전망	Sinopec

자료) KPFA

한편, 9월1일에는 양측 참가자들을 위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방문도 계획되어 있다.

국내 화학산업단지 방문은 1999년 1차 회의 때 울산 및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2001년 3차 회의 때 대산석유화학단지, 2003년 5차 회의 때 울산 석유화학단지를 방문한 바 있다. <김건우 기자>

<화학저널 2005/07/07>